



www.woodencrosschurch.com
건강한 복음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무십자가한인교회

VISION 2015
하나님의 모든 종만하신 것으로 총만케 하시는 교회 (엡 3:19)

교회소식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3기도

매일 정오 12시에 3분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끼금식선교

일주일애 하루, 한끼금식 헌금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합니다.

1. 주일예배 장소 및 시간변경

12월 6일(주일)부터 본당(sanctuary)에서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오후 2시로 변경됩니다. * 다음세대 목장 예배장소는 변동 없습니다.

2. 사역변경

정병완목사(여호수아, 다니엘목장) / 이강배전도사(예배, 미디어사역)

3. 주일설교

11월 22일-이태식목사 / 11월 29일-정병완목사

4. 제직학교

2016년 제직임명을 위한 제직학교가 12월 13일과 20일에 있습니다.
*임명예정자 : 유은숙, 임혜경, 정동진, 신용진, 최자은, 박선아, 윤은경, 김영자, 강정은, 이광열, 최종희, 타티아나, 천길영, 김지연, 도유경, 김정미, 김선진, 유지인.

▶교우소식

*금주 다과 : 김성욱, 유지인집사 / 다음 주 : 정동진, 강정은집사
*출타 : 담임목사(한국방문 11.16-12.4)
이태식목사(세계를 품은교회설교)

▶행사

*교회 : 12.6-성찬예배, 본당예배 / 12.13, 20-제직학교
*교계 : 11.18-20-코퀴틀람한인교회부흥회(강사:이효선목사/4시)
11.28-교협청년, 청소년집회(강사:이영표집사/7시/순복음교회)

예배위원 안내

이변주	기	1부	안숙영	2부	천길영	헌	최자은	안	11월 김은경
다음주	도		문경화		김지연	금	박선아	내	12월 정동진

공동기도제목 123기도와 새벽기도 등을 통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이 소원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더해지도록
성도를 위해	김정미집사, 류영현성도, 현우/현태 가정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위해

선교현황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	다	Young 2080	김종현 목사
캐나	다	Power to Change	이정부 목사
캐나	다	하나선교회	박사라 목사
케	냐	Mission Kenya	정제호 선교사
북	한	First Steps	Susan Ritchie
한	국	Just Joy	우종진 목사

03-45

2015. 11. 15

주 일 예 배

1부 9:00 2부 13:30

인도 : 문경돈목사

경배와 찬양	나무십자가위십
회중기도	(1부) 안숙영사모 (2부) 천길영집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양	할레우스 찬양대
다음세대 축복	너는시냇가에
성경	마태복음 8:1-3
봉헌찬송	542(통340)장
말씀	문경돈목사

내가 원하노니

* 찬송	2015년주제찬양
* 공동기도	다같이
* 축도	문경돈목사

[성도의 교제]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매주 수요일 저녁8:00

경배와 찬양	다같이
말씀	정병완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6:00

QTzine 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서학당

성경읽기방 (출애굽기편)

매주 (수) 오후 1시

확신과 성수반

매주(수) 오전10시, 오후1시(목) 오후1시

2015년 하반기 목장 나눔

후반기 6회차, 11월 16일-11월 28일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무십자가한인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희생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신앙공동체, 올바른 복음과 말씀에 근거한 비전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비전공동체, 선한이웃선교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공동체로 세움 받은 교회입니다.

나무십자가한인교회는, 캐나다 복음주의 교단인 Foursquare Gospel Church 에 속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후 1:30
	키즈	오후 1:30
	유쓰	오후 1:30
	청년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어머나기도 (목) 오전 10:00

목장모임 목장별 (격주)

성서학당	성경읽기방	(수) 오후 1시
	성경개관	년 1회
	확신과성숙	년 1회
	제직학교	년 1회



예배안내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목장공과

내가 원하노니...(마태복음 8:1-3)

마음열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알려진 요술램프의 지니(genie)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당신이 고백할 한 가지 소원을 목원들과 나눠보십시오.

내용보기

주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까?

1. '역경을 뚫고 나아오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2절).
2.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2절).
3.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이 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3절, 막 1장 41절).

나누기

1. 나병환자의 인생을 움아매고 있었던 나병처럼, 당신의 인생을 움아매어 당신으로 하여금 절망과 고통가운데 헤매도록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눠보십시오.
2. 주님이 당신과 함께 소원을 두시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결단하여 실천해야 할 내용은 위의 1, 2, 3번 중 어느 부분입니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고, 그 이유를 고백해 보십시오.

적용하기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이나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기도제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

목양편지

세상을 노엽게 하라



어릴 적 친구가 일제 샤프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일본에 업무 차 다녀오시면서 선물로 사 오신 샤프였습니다. 제 기억엔 모양도 깔끔하고 성능도 아주 좋은 검정색의 샤프였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얼마나 제게 자랑을 하던지 너무도 약이 올라 결국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때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게 그런 샤프가 필요할 리 만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이 듣기 싫은 소리로 때를 쓰니 결국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일제 샤프가 갖고 싶으면, 네 친구 아빠를 네 아빠 삼아라!".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제가 보인 마음 속 반응은 실제로 친구 아빠를 제 아빠로 삼고 싶은 만큼 친구의 자랑에 약이 올라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키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시기하여 노엽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약 올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하나님의 장난스러운 약 올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에 시기심의 마음을 품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애절한 마음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고, 의로울 것이 없는 미련한 우리들을 먼저 믿도록 허락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의 저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를 적용해 보니, 하나님은 먼저 믿게 된 우리를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시기와 노여움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모습',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삶',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입술', '먼저 십자가를 지며 헌신하고 손해 보는 자세', 그리고 '궁극적인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리는 모습' 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저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제발 시기하고, 노여워 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빼앗고 쟁취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의 여정에 들어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봅시다. 세상의 저들이 약이 오를 정도로 부러워서 자신들도 그것을 누리지 않고는 못 견뎌 할 만큼 우리는 성도로서의 존귀함과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질투심이나 부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이 시기할 만한 삶이 되어서 그들로 우리의 모습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고지를 향해 오르고 올라도 마음에 참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며, 자괴감과 분노와 상처에 힘들어 하는 세상이여! 우리의 이런 축복된 신앙의 여정을 보라... 참으로 약 오르지 아니한가?'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문경돈
 교육목사(청년,유스) 정병완
 전도사(찬양,미디어) 이강배
 전도사(드림,비전) 김은경
 할레우스찬양대 문경화
 예배반주 양성윤

교회 (주일예배/새벽기도회)

1460 Lansdowne Dr. Coquitlam

שלמחנהמלגה (성서학당/스그룹)

2724 Barnet Hwy Dr. Coquitlam

Contact (전화/이메일)

778-772-4738
 woodencrosschuech@gmail.com